"모두가 더불어 살수 있는 과제 찾아 전력 다할 것"

Interview 당선인에게 묻다 - ⑨완주진무장 **안 호 영**

아무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당선인을 예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무주와 진안, 장수지역보다 인구수가 훨씬 많은 완주에서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전 완주군수)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더민주 현역의원인 박민수 의원과의 경선에서의 승리로, 지난 13일 본선에서 임정엽 후보를 누르고 승리의 정점을 찍었다.

쉽지 않았던 싸움… 무엇이 힘들게 했을까?

"선거구 획정이 늦어 짧은기간에 선거운동하고 같은당 현역의원과의 경선 등 모두 쉽지 않아"

20대 국회에서의 목표는?

"지역의 낙후성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 산악힐링관광 등 공약 실천할 입법제정에 주력"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당선인은 어찌 보면 제20대 총선에서 최고 이변이었다.

이번 선거 초반부터 종반까지 그 누구도 안 당선인을 예상하지 못했다.

완주군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임정엽 후보와 힘겨운 싸움이 예상됐다.

그러나 바닥민심은 '젊은 후보'인 안 당선인을 선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경선부터 강한 상대인 박민수 현 의원을 눌러 이변을 일으켰다.

경선을 통해 검증을 받았다는 논리가 크게 어필됐다는 평가다.

특히 완주군민 내부적으로도 임 후보에 대한 표심이 분산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적극 공략한게 주효했다.

여기에 고향인 진안을 기반으로 역전 승리라는 기적을 만들었다.

정책적 비전을 제시한 공약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안 당선인은 완주지역을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로 건설하고 신성장 활력 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역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었다.

또한 내륙권 산악지대인 진안무주장수에 대해서는 산악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완진무장 산악힐링관광 정책'을 내놓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완주진안무주장수 군민들과 도민들에게 감사하다.

쉽지 않은 선거였지만 선택을 받은 것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는 뜻으로 본다. 이에 화답하듯 지역민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거과정 힘들었던 순간은?

아무래도 선거구 획정이 늦었던게 힘들었다.

짧은기간 선거운동을 해야만 했고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 모두 쉽지 않았다.

▲전북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두 선거구에서만 당선됐다. 책임감 크다.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이 도민들에게 회초리를 맞았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또 신뢰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목표가 있나?

우선 우리사회는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

크게는 모두가 더불어살수 있는 과제 찾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완주진안무주장수 낙후성을 발전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공약을 정했지 않느냐. 이를 실천할수 있는 입법제정과 예산확보에 힘을 쏟겠다.

▲도당 위원장을 맡을 의향은?

상황이 되면 맡겠다. 그러나 그 부분의 협의가 필요하다. 중앙당 입장과 이춘석 의원 입장, 원외 입장이 다르다. 공동으로 협력해서 협의하겠다.

▲초선의원 한계 우려도 제기된다.

물론 그럴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초선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에 열심히 하겠다. 문제 없다고 본다.

▲유권자에게 한마디 한다면?

선택해 주신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다.

/신광영 기자

새누리 나경원-정진석 당선인 원내대표 출마 사실상 선언

새누리당이 26일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서 차기 원내대표 합의추대에 불발하면서 비박계 나경원 의원과 충청권 정진석 당선인이 원내대표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자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나라를 구하고 당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나타냈다.

정진석 당선인도 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자문하고 있다"며 "밖에서 저에게 나서달라고 요청을 해서 상황이 조성된거다. 신중하게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듣고 며칠 사이 결심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이성주 기자

총선 출마 도내 후보자들 선거비용 보전액 38여억원

47명 중 23명 대상자… 당선자 · 득표율 15% 이상시 보전받아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전북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선거비용 보전액은 38억2,433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일 선거비용 보전액 청구를 마감한 결과 총 23명에 38억2,433만5,657원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최종 후보자수 47명중 49%인 23명이 보전대상자이며, 이들 모두 당선자이거나 득표율 15%이상의 전액보전대상자이다.

선거구별로는 ▲전주시갑 3억2,461만6,017원 ▲전주시을 3억8,553만7,450원 ▲전주시병 3억4,031만7,930원 ▲군산시 4억394만8,449원 ▲익산시갑 2억3,831만7,499원 ▲익산시을 2억8,370만3,579원 ▲정읍시고창군 5억9,138만8,775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5억9,607만3,304원 ▲김제시부안군 3억3,233만8,572원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3억2,808만4,082원으로 조사됐다.

비용제한액 대비 청구액 비율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전주시갑으로 97.78%, ▲가장 낮은 선거구는 익산시갑으로 71.35%이다.

후보자별로 살펴보면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전주시을)가 99.87%로 가장 높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당선자(익산시갑)가 58.31%의 가장 낮은 청구액 비율을 보였다.

점자형선거공보 등의 제작비용이나 장애인후보자 활동보조인의 수당 실비는 보전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청구된 총액은 6천76만4,056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익산시장재선거는 2억7,703만738원 ▲도의원보궐선거는 1억7,776만7,451원(전주시제2선거구 1억152만4,150원, 익산시제4선거구 7천624만3,301원) ▲시의원보궐선거는 8천482만3,484원의 보전청구액이 접수됐다.

이중 비용제한액 대비 청구액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전주시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전석진 후보로 99.58%를 보였다.

재보궐선거의 보전액은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보전청구서를 바탕으로 비용지출에 대한 위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확인해 오는 6월 10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해 줄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확인 요구시 업체 등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광영 기자

장애인들이 놀러가기 좋은 전북만들기 위한 정책 모색

도의회 최은희 의원 장애인관광 활성화 세미나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도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이 관광하기 좋은 전북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들이 논의됐다.

세미나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노영순 연구위원이 '장애물 없는 관광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장애인관광관련 정부정책과 해외사례를 소개했고 한국장애인문화관광센터 대표이면서 장애인 여행작가인 전윤선 센터장이 '전북도 장애인관광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또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전북도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장애인관광 가이드라인 제작', '리프트장애인관광버스를 이용한 장애인 팸투어 실시',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 확대', '턱없는 베리어프리 관광지 조성', '장애인관광 브랜드 마케팅'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최 의원은 "관광정책의 기본은 첫째 물리적 환경 조성, 둘째 정보제공, 셋째 서비스 개선이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부 일반인의 기준에서만 계획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앞으로의 관광 정책사업들, 그리고 도시·농촌의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 제공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장애인과 노인의 눈높이에서 계획되고 설계된다면 특별하게 장애인정책이라고 구분 지을 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 관광정책이 장애인을 위한 관광, 즉 몸이 불편하더라도 전북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다채로운 축제와 관광지를 '좀 덜 불편하게, 좀 더 안전하게' 오갈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다. 장애인과 일반인 구분없이 차별없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무원이 정책에 접근하는 방법과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 등록장애인은 13만명, 65세 이상 노인은 약 32만명으로 관광약자인 장애인·노인이 도민의 25%를 차지하고있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김종인 대표

'고립무원(孤立無援)' 신세 어쩌나

기대 걸었던 '당 대표 합의추대' 당 안팎 여론 부정적으로 흘러가

정청래 의원 "김 대표 DJ 비례 공천장사 발언, 호남 완패 원인"

당내 소수파인 비주류 의원들도 대부분이 미온적 반응 보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사실상 '고립무원'(孤立無援)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합의추대를 거부하자 친노계 일각에서는 대놓고 김 대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이젠 비주류까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특히 김 대표가 기대를 걸었던 '당 대표 합의추대'에 대해 당 안팎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면서 이같은 흐름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안이 촉발된 것은 지난 22일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만찬 회동 이후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대표 추대론 등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지만 이후 공개된 문 전 대표와 김 대표의 발언이 엇갈리면서 양측은 더욱 감정적으로 충돌했다.

문 전 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인 23일 한 언론과 만나 김 대표에 대한 합의추대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힌 뒤, 특히 김 대표가 당 대표를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당대회에도 불출마하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이에 발끈했다. 김 대표는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 전 대표와 단 둘이 만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김 대표는 "사후에 말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일부 사람들이 말을 자꾸 이상한 형태로 만들어내는데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가 이같이 역정을 내며 반발했지만 당내에선 흔쾌히 편을 들어주는 이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당내 일각에서 "비례 2번이면 사실상 보상을 받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김 대표는 지난번 비례대표 파동 당시에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벼랑끝 살라미 전술'을 통해 위기를 정면돌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인 대표에 대한 공격의 선두에는 정청래 의원이 서있다. 그는 김 대표의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더컸유세단'을 이끌며 전국 유세를 벌여왔다. 정치권에서는 주류 친노가 김 대표에 대한 '계산'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 의원 외에도 범친노로 정세균계를 이끄는 정세균 의원, 역시 범친노인 임채정 전 국회의장, 친노인 설훈 의원 등 대부분의 친노가 김 대표 추대론에 부정적이다.

정 의원은 실제 지난달 26일 전남 영광 이개호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개인 김종인에게는 서운해도, 대표 김종인에게는 비판을 자제해달라. 계산은 총선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총선이 끝난 직후에는 자신의 말을 실천이라도 하듯 총선 후에는 '김종인 저격수'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비리혐의로 돈 먹고 감옥간 사람은 과거사라도 당 대표 자격기준에서 원천배제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 의원은 25일 모 언론사와 만나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보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며 "당헌당규에 맞게 해야 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호남 완패는 김종인 대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 파동이 선거 막판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날렸다"며 그런 것이 없었으면 호남에서의 참혹한 패배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종인 대표가 비례파동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례대표 공천장사를 했다'는 식으로 표현했고, 인신공격을 했다"며 "호남사람들이 굉장히 화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당내 소수파인 비주류 역시 김 대표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대표와 당내에서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영선 비대위원은 물론 김부겸 당선인 등 비주류의 영향력있는 인사들이 대부분 미온적인 반응이다.

이에 더해 비주류인 3선의 이상민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김 대표가 문 전 대표에 대해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의 입지가 더 불안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화가 많이 났지만 이런 말을 밖에 하는 것은 당의 취약한 구조나 상황을 볼 때 적절치 않다"며 "조금 삭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